

## 근대적 역동, 그 즉물적 표현

### A Modern Dynamics and Its Objective Expression

이공희 / 유창건축사사무소, 국민대 건축학과 겸임교수  
by Lee Gong-Hee

산세가 배경이 되는 건축이 그러하듯 이 건축의 일견한 조형은 건축 가까이 근접된 관악산 자락을 따랐다. 그러한 연유로 해서 이 건축은 캠퍼스 안에 있지만 캠퍼스 마스터플랜 전체가 갖는 지오매트릭한 질서의 힘이 나 축이 제공하는 근거에 의존하려 하지 않는다. 이 건축의 실마리는 어느 캠퍼스 안에 건축과는 다른 접근과 조형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디자인의 과정과 같은 접근을 찾을 수 있다면 대지가 속해 있는 캠퍼스와의 관념적 연계와 캠퍼스정문의 직설적 상징과의 교감정도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건축은 캠퍼스 안의 하나의 건축이기 보다는 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즉물적 컨텍

As with other architecture sited against a backdrop of mountains, the Engineer Hous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lso borrows the stream of Mt. Kwanak as its formal inspiration. For this reason, it is unlike other buildings of the campus that rely on the geometric or axial order suggested by its masterplan - it is one of a different approach and formal analysis. What few instances of analogy it has with the design process of others can be found in its conceptual affinity with the campus and the indicative symbolism shared with the University's main gate. In other words, this architecture is not to be read within the fabric of the campus but in its sachlich context of nature, from which the architect, in a rather modernist approach, has extracted the formal order and structural idea.

Its given condition was the sloped contour of the mountain and a difference of a level's height within the building area. Whereas the late-modernist method must have employed devices of distortion and exaggeration, this work suggests a basic triangular structure which effectively reflects its surrounding geographical conditions. What adds to the probability of this structure is the variety of programs it incorporates - restaurants, auditorium, and seminar

스트에서 그 규범과 구조적 실마리를 찾아간 다소 근대적인 접근의 시각에서 논의의 관점을 찾으려함이 의미롭다.

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는 산세와 그것이 제공하는 한층차이가 나는 경사된 대지로 요약된다. 이러한 요약에 관한 해법으로 후근대의 왜곡과 과장을 대신하여 산세와 지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한 삼각구조로 그 실마리를 풀고 있다. 삼각구조의 개연성을 더해주는 것은 건축이 갖고있는 프로그램들의 단면용적이다. 레스토랑, 오디토리움, 세미나실 등 모두 서로 다른 천정고를 갖 고자 한다는 점이다.

대지의 형상에서 찾아진 삼각구조원형은 각기의 프로그램의 용적에 적응하면서 규모가 다른 삼각구조가 그 원형안에서 같은 질서로 조합된다. 마치 크고 작은 모듈이 건축에 적응, 조합하듯이 건축을 만든다. 진입하는 로비의 오픈닝이 가지고 있는 용적의 배분이 그러하고, 수직이동간 전망되는 계단의 외피가 산세로 누워 경사진 커튼 월이 삼각구조의 일부가 된 것이 그러하다. 보다 큰 층고를 필요로 하는 오디토리움은 높아진 층고 전체를 필요로 하진 않는다. 실용적이 허용하는 외의 용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이것은 단면의 양구가 갖는 공간을 삼각구조 바깥에 둬서 경사진 천정구조를 갖게된다.

따라서 오디토리움의 중심이 삼각구조의 중심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삼각지붕을 갖는 오디토리움은 무대를 향하여 방향성을 갖는 공간을 제공해준다. 전체

halls all require different dimensions of area and space.

The triangular structure abstracted from the topology is then adjusted to the breakdown of its functional spaces, and results in a division of triangles with different sizes yet built upon the same rules. Several modules become arranged and assemble the body of the building. The grand opening of the entrance lobby, or the integration of slanted curtain walls to the triangular structure by blending the staircase's exterior skin to the mountain's contour is the gift from the architecture's initial organizational premise.

The auditorium, in need of a greater height, nevertheless does not claim the full dimension of the ceiling. It is thus planned, and reflect the architect's will to provide space not more than the required. The spaces on the edge of its section are placed outside the triangular structure, and are given inclined ceilings.

As its center is placed within the core of the triangular structure, the auditorium, with a triangular roof, is inherited with a flow of space towards the stage. The grand triangular structure, dominating the building's overall form, influences the spaces of each program including the double-storied restaurant. Even in the seminar halls, one side of the wall is slanted and confirms

조형을 지배하는 큰 삼각구조는 중층개념으로 걸린 레스토랑의 슬라브까지를 포함하여 전기능실에 영향을 준다. 세미나실 등에서 보는 외피도 이 삼각구조의 틀 속에 있음으로 해서 한 기능공간 안에 경사진 한 벽면을 갖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사진 벽이 어느 후근대의 경사진 벽으로 보여지지 않음은 또한 그러한 관점으로 보여지지 않음은 삼각구조의 변환에 일정한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고, 이를 보존하고 그 연속선상에 있으려는 의지가 있으며, 그것을 완성하는 수단조차도 기하학적 해법에서 연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해법의 일반적으로 결과되는 조형의 테이스티는 정적 감성을 보이거나 검약한 공간의 질을 보여줌을 안다.

하지만 같은 해법으로 만들어진 엔진이러 하우스 건축이 결과된 표현은 다소 다른 결과로 표현된 것으로 읽어진다. 내부공간으로부터 외부공간에 까지 노출되는 삼각구조의 표현은 그 형태의 본질적 형상이 역동적 감성임으로 해서 정적 감성물로 결과되기보다는 동적 속도감을 갖는 조형으로 보여진다. 삼각구조의 모듈 안에서 호흡하는 작은 삼각구조물의 반복이 갖는 한계로 의도되었던 그렇지 않았든 검약한 공간으로 보여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대로 노출되어 만들어진 삼각구조로된 내부공간은 쉽게 인식되어 이러한 시각이 과장되지 않음을 알게 한다.

역동적 감성표현과 함께 이 건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감성은 건축화 과정을 통해서 변질될 수 있

its presence within the triangular frame. This inclination, or 'distortion,' does manifest itself as a symptom of post modernism, since it is constructed within the order and variation of the triangular structure, preserving and maintaining its rules through geometric compositions. The resulting atmosphere of forms this solution provides is one of tranquil emotions and spatial modesty.

The final expression of the Engineer House, however, at times deliver another sensation. The display of triangular structure from its interior to the exterior, with its strong diagonal lines, is more akin to a form of dynamic velocity than one of silency. The smaller partitions of triangles within the module of the grand structure, along with their repetition, has difficulty - perhaps contrary to the architect's intention - suggesting an air of simplicity. The interior space, with its triangular shelter exposed, enables the viewer to have an easy comprehension of its composition and proves that this view is not far fetched.

Apart from its dynamic expression, the work also features a sincere approach to the use of materials in architecture. Often a material is subject to various kinds of manipulative uses, but in the Engineer House, such converted expression is defied by the

는 재료자체 물성을 존중하는 접근이다. 이 건축의 구조를 이루는 삼각구조의 철골조차도 별도의 마감이 씌어지지 않고 그대로 노출하는 즉물적 표현으로 물성의 변화된 표현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1층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벽면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삼각구조골격 그대로를 유지하도록 한다. 재료자체의 색과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사가 분명하다. 재료자체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함은 건축의 사용자에게 건축되는 재료의 물성 그대로를 체감하게 하고자하는 건축가의 의사일 것이다. 재료자체의 감성을 공간에 맞게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된 재료의 물성이 건축화의 과정 속에서도 여과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자의 감성까지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알미늄 바와 유리로 된 외벽이 그러하고 골격을 구성하는 구조체도 내화페인트로 최소화한 점도 그러하다. 몇해전 건축가 공일곤건축이 모라도 사옥등에서 보여주는 단정한 이미지는 유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대해 왔었던 음악적 감성은 건축가의 보다 간결하고자함과 경륜으로 만들어진 논리적 프로세스로 대신하고 있음을 이 건축에서 본다. 대지와 프로그램을 하나의 건축체계로 해석하고자하는 건축가의 의사가 역동적 조형으로 결과되고 있음은 필자의 기억에 남아있는 공일곤건축이 음악적 감성으로의 의지가 유지되고 있음이기를 기대한다. ■

objective, or sachlich, use of steel beams that construct the triangular structure.

With the exception of the interior finishing of walls in the first floor's restaurant, the exposed steel structure is preserved and manifested in its primary state. Color and other idiosyncratic features of the material are clearly respected - the architect wishes to deliver to the users the objective properties of the materials, which are chosen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untouched and unhindered by the process of realization. The aluminum bars, the glass walls, and the structural components only dressed in fire-proof paint all are proof of such intent. Architect Kong Il-gon, co-designer of the project, has showed us a few years ago a refined treatment of forms in his Morado headquarters, which survives to this day in the Engineer House. His musical sensibility, however, seems to be substituted with a preference for simplicity and logical process, gained from his long experience. A synthesis of site and program into a singular system of architecture through a dynamic form may well be a positive sign of the presence of his work's musical qualities, which so much lingers inside the writer's mind.